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7주일
제3권 35호(다해) 2010·7·25

[묵상]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그리스도
<15세기, 채색상화, 파에르폰토 모건 도서관, 뉴욕>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엇을 청해야하는지
어떻게 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청하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이상을 염려하는 욕심,
잘못한 이를 용서하지 못하는 교만함,
유혹에 늘 떨어지는 나약함,
이런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하합니다.

청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청하는데,
그대로 주실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란 아버지가 뜻을 바꿀 때까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따를 때까지,
내가 변할 수 있을 때까지
청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래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첫제/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발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산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김철웅 베드로
특전미사	(생) 김형순 다니엘 & 호인 벨라멧다, 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주 일 낮 미사	(연) 조지 가보라,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박준구 요한, 고준희 제임스, 김종환 야고보, 김하서 마리아, 홍순희, 김옥희 세실리아 수녀, 김종렬 아가비도, 장현숙 발바라, 이금순 마리아, 박문영 안젤라, 오영환 안드레아, 이성엽 마리아, 송학래, 임은섭 도로테오 (생) 최기남 야고보, 고규재 체칠리아, 마크 안, 정진확 알 베르토 & 진세 시몬, 조윤영 아우구스티노 & 희숙 안젤라 가정, 이재준 요한 & 해란 엘리사벳 가정, 권순봉 요안나, 반영선 도미니카, 박준서 야고보 가정, 홍석인 체칠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8,20-32

화답송 ○주님을 부르는 날, 주여 제게 응답해 주소서.
<전례성가 85 연중 제17주일 다해>
○내마음 다하여 주님 기리오리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셨기에,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노래
하오리다. 성전 앞에 엎드려 찬양하오리다. ○
○어지심과 진실하심 우리르며, 당신 이름을 찬양
하오리다.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제게
응답하시고, 내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셨나이다. ○
○정녕코 주님은 높으시어도, 낮고 낮은 사람을
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거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 비록 고생길을 걸을지라도,
당신은 이몸을 살려주시고, 당신 손을 펴시어
원수의 분노 막으시나이다. ○
○당신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여 주시고,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다!
주여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

제 2독서 콜로새(Colossians) 2,12-14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음 루카(Luke) 11,1-13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0	230
봉헌	259	191
성체	283	272
파견	194	187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태중 아이들의 존엄성

그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엘리사벳이었지만 은총을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은 요한이다. 엘리사벳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목소리를 들었고, 요한은 신비 때문에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도착을 알아보았고 요한은 주님의 도착을 알아보았다. 여인은 여인의 도착을 알아보았고, 아기는 아기의 도착을 알아보았다. 여인들은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 아기들을 태중에서 어머니들의 선익을 위해서 그 은총이 효과를 발휘하게 만든다.

그 어머니들은 이중의 기적으로, 자기 아기들의 영감을 받아 예언한다. 아기는 뛰놀고 어머니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충만해지며, 아들도 어머니를 충만하게 채운다.

▶노년의 생명과 고통을 받을 때의 생명

46). 성서적 계시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것까지, 노인들과 병자들의 존중에 대한 현대의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거나, 강제로 서둘러서 그 생명을 끝마치게 하려는 시도들을 명확하게 단죄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일 것이다. 성서가 놓여있는 문화적, 종교적 배경은 결코 그러한 유혹들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은 가족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원천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년은 위엄을 지닌 시기이며, 주위의 존경을 받는 시기이다.(2마카 6,23 참조) 정의로운 사람은 노년과 노년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으며, 오히려 이렇게 기도한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시옵니다. ……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시편 71,5,18) 메시아 시대의 이상은 "평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는"(이사 65,20) 그런 시대라고 표현된다.

노년에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쇠락을 어떻게 맞아야 하겠는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믿는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몫을 간직하고 계시나이다."(시편 16,5 참조)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할 필요성을 하느님에게서 받아들인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주님의 선고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어찌 거역하려느냐?"(집회 41,4) 인간은 삶의 주인이 아니며, 죽음의 주인도 아니다. 인간은 삶과 죽음에 있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기뻐하시도록", 그분 사랑의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한다. (◆계속)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판단하는 그런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갈구합니다. 우리 신자들조차 뉴에이지 운동이나 신흥 종교들에서 제공한다고 주장되는 영적 체험이나 기도 체험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친숙한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일차적으로 외워서 바치는 '염경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들 깊은 묵상과 영적 체험으로 이끌어주는 '묵상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히 기도 중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일곱 개의 청원기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인지 네 번째 기도가 제 마음에 다가와서 계속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내가 날마다 먹기를 청해야 할 '양식'은 과연 무엇 일까요? 우선, 나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으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은총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거리가 없어서 목숨을 잃고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먹을 음식을 주십사 하느님께 청하는 한편 세상에 하느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듯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루카 4,4) 밥이나 빵이나 라면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또 다른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은총'을 매일 청합니다. 또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오늘 하루 참아내고 가능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매일 청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매일 청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청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숨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하지만 공기의 존재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 드문 것처럼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 시선을 주목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아마도 자그마한 '신비체험' 내지 영적 체험을 가졌다고 확신해도 무방합니다.

문득 "감사를 느끼는 이에게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르는 길을 보여 주신다."(본회퍼)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청해야 할 최우선의 '양식'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을 지버리고 감사할 때,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회준 루도비코 신부 /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래 태래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권순걸 체첼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태래사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4 -

공지사항

◆ 첫영성체/신영성체/전진성사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5월 전진성사, 6월 첫영성체 예식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9:30am 한국어) 있습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폐막

- 오늘 주일(25일) 오후 5시 성당 도착 예정
- 학부모님들은 자녀 pick up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 성모님 탄생축일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세미나

- 일시 : 8월4일(수)~5일(목) 오후 7시
- 주제 : 회개의 삶
- 장소 : LA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637 S. Kingsley Dr.)
- 준비물 : 묵주와 가톨릭 성가집
- 강의 : 이용혁 요한 신부
- 주관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 평의회 지도신부- 김두진 바오로 신부

◆ 이나시오 영성수련 침묵과정

- 일시 : 8월6일(금)~10일(화)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의 집
- 주제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오 5,3)
- 지도 : 이영찬 사도 요한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30 * 문의 : 김레지나 ☎(310)748-9710

◆ 평화방송/평화신문 선교체험사례 공모

선교체험사례 공모는 특히 본당 내 여러 단체와 팀으로 활동하며 예비신자들을 입교시키거나 냉담교우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사례를 선정해 격려하고 모범으로 삼고자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단체와 팀으로 선교한 감동적인 이야기
- 응모 대상 : 본당 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및 팀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정도(A4 3~4장)
- 응모마감 : 8월 27일(금)
- 접수 : 전자우편 missionary@seoul.catholic.or.kr
- 수상자 발표 : 2010년 10월 3일자 평화신문
- 시상식 :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선교대회
- 시상내역 : 대상-상금 200만원, 우수상-상금 100만원, 장려상-상금 70만원
- 기타 : 신청서는 사목국 누리방 (www.samok.or.kr)에서 내려받아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단체 모임

가정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강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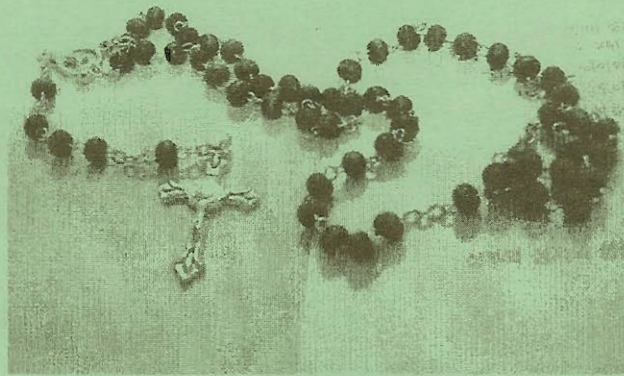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3(화)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이근태 세르지오 530-7702 7/18(주일) 오후 1시, 토런스파크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신덕례 데레사 494-1390 7/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0-7798	1	이진향 아메스 989-0366	김마틴&크리스티나 533-1435 7/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4(일) 오후 5시, 할리웃보울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7/17(토)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김용 스테파노 378-4183 7/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7/21(수)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전하현 마리아 793-7733 7/9(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7/18(일) 야유회 델슨 파크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7/11(일) 야외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2 반과 합동 반모임 장소 : 샌 피드로 파크
P. V. 김명재 아가다 541-3687	1	미정	P.V. 1,2,3,4 반 합동 반모임 7/10(토) 오전 10시, 라이언 파크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

주보로 배우는 교리

하느님은 왜 착한이가 고통받도록 두시나요?

☞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매일 미사참례는 물론 기도와 봉사활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자신도 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당신을 믿는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시는지 실로 궁금합니다.



먼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매님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선한 이들이 고통을 받는 일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정말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참된 삶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누구나 이 현세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현세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지요. 영원한 삶, 고통도 악도 없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현세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은 우리를 더욱 완전한 존재로 만들려 하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려 하시지요. 그러기에 때로는 당신께서 더 사랑하시는 이를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당신 곁으로 먼저 부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하느님은 이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 레지오를 하시는 어머니를 따라 매일 밤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주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가 궁금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의 하나가 바로 묵주의 기도를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묵주(默株)의 기도라는 말은 '장미(rose) 화관', '장미 꽃다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 rosarium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기원은 초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즉 당시

은수자들이 자신들이 바치는 기도의 수를 세는데 돌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중세에 와서는 수도원에서 죽은이들을 위해 매일 시편 50편이나 100편을 기도했는데, 글을 모르는 수도자들은 시편 대신 주의 기도를 50번이나 150번 하게 하였죠. 그런데 그 번수를 세는데 어떤 열매 알 50개나 150개를 가는 줄에 엮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일반 교우들도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모 신심이 강했던 12세기에는 주의 기도 대신에 성모송을 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성모송만 염하던이 기도에서 주의 기도가 다시 삽입되지요.

즉 묵주알을 열 개를 돌려 기도하던 성모송 열 번마다 좀더 큰 알을 꿰어 마치 후렴처럼 주의 기도를 간간히 했으며 13세기에 와서 영광송이 삽입됩니다.

한편 도미니코회의 창설자인 도미니코 성인(1170-1221)이 묵주기도를 강조한 후 도미니코 제3회에 의해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하여튼 당시 묵주의 기도 방법은 다양했는데 마침내 교황 식스토 4세(1471-1484)께서 지금의 이 기도양식을 고정시키고, 이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도록 명하십니다. 16세기에 터키와의 전쟁에서 '로사리오의 성모'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자 교황 비오 5세는 10월 첫 주일을 로사리오의 축일로 정했으며, 19세기 레오 13세 교황(1878-1903)은 이 축일을 성대히 지냄과 동시에 10월을 로사리오의 달로 정하면서 이 로사리오에 의한 신심을 장려하셨습니다.

☞ 9일기도를 드리다 하루를 빼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도 되는지요.

9일기도는 9일 동안 특별한 지향을 갖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이기에 도중에 하루를 빼먹었다면 역시 그만큼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원칙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혹은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이 생겨 계속할 수 없었다면 아마 하느님께서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하셔서 받아들이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입니다. 9일기도는 마치 여인이 한 아기를 잉태하여 9개월 동안 품안에 품고 생명을 키우듯 우리가 바라는 지향을 맘에 품고 9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자료: 서울 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